

# 고흥 김양식장 재배치·품종 변경을

## 산업 활성화 포럼 ... 불법 시설물 근절·친환경 단지 조성 필요

점차 쇠퇴하고 있는 고흥 김양식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김양식 면적을 늘리고 양식어장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재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장은 최근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린 '고흥 김양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 양식어장이 협소한 실정에서 김양식어가 합법적으로 마음놓고 양식을 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현재의 면허허해조류(파래·다시마) 면허지를 김양식 면허로 품종을 변경해야 한다"며 "불법시설 근절과 원활한

조류소통을 위해 양식어장 면허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군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남도, 고흥군 관계자와 어업인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고흥지역 김양식어장에 대한 위성촬영 판독결과 불법시설이 30.9%를 차지했으며 다시마·파래·해상종묘 생산허가 등 미분류시설이 32.6%로 나타났다. 현재 파래 양식면적은 1천192ha, 다시마는 520ha에 달한다.

고흥군의 김 양식장 면적은 3천877ha로 전남도의 9% 정도이나, 생산량과 생산금액은 각각 800만속과 251억원으로 전남도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무면허 시설과 어장이탈 등 불법 시설물설치 근절을 위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와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친환경 김 인증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고흥군의 지난해 김양식 면허는 63건 3천671ha이나 실제로 면허지내 1만8천471책(2.2×40m), 면허지밖 3만2천179책 등 총 5만650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흥군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양식물 품종 변경 ▲어장 재배치 ▲친환경 양식단지 조성 등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박래복 고흥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친환경 수산물 양식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품질의 김을 생산해야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예전의 고흥 김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보성 '우전차' 수확 한창**  
품 농차로 판매된다.

곡우(穀雨)를 하루 앞둔 19일 보성 대한다원 차밭에서 첫잎 수확이 한창이다. 곡우를 전후해 나오는 '우전(雨前)차'는 촉감이 부드럽고 향과 맛이 좋아 최상품 농차로 판매된다.  
/동부취재본부=선성근기자 sun@

# 영광 은배수 활용 '아쿠아리움' 개장

## 22억 투입 까치상어·해마 등 45종 전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나오는 따뜻한 물을 이용한 아쿠아리움이 영광에 문을 열었다.

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중신) 영광원자력본부는 은배수양식장을 리모델링해 우리나라 인근해에 서식하는 까치상어와 해마 등 45종의 해양생물을 전시하는 '에너지 아쿠아리움'을 지난 16일 개관했다.

아쿠아리움은 22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모양을 본뜬 24개의 수족

관 922.5㎡(279평)에 동해, 서해, 남해, 연해의 생물을 영역별로 배치해 선보이고 있다.

아쿠아리움은 원전에서 수증기를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하는 따뜻한 물인 은배수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쿠아리움은 예약된 단체관객만 관람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출입시설이 완료되는 올해 말에 자유관람이 가능하다.

영광원전은 지난 1997년부터 은배수를 이용해 양식한 넙치, 농어, 조피볼락 등의 어류를 주변 해역에 지속적으로 방류해 어족자원형성에 기여했으며, 양식어류 무로 시식회를 통해 은배수의 청정성, 원자력발전소의 친환경성을 입증했다.

영광원전 관계자는 "아쿠아리움 개관으로 은배수의 청정성을 강조하고 원자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광양시 기업 협의회  
인턴 등 843명 채용**

광양시는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관내에 소재한 기업체협의회, 일자리지원관련단체, 직업훈련기관 등 16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지원협력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기관·단체 및 기업체들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포스코 2개 자회사는 490여 명,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는 인턴사원을 중심으로 298명, 초남산단 협의회는 55명을 각각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청수기자 choun47@

# 여수서 '기후보호주간' 행사

## 박람회 성공 개최 '차없는 날' 운영 등 다채

여수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 의지를 모으고 지구환경을 선도하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제3회 기후보호주간 여수 2010' 행사를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여수 시내 일원에서 개최한다.

'기후보호!! 미래를 위한 약속!!' 여수 2010'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며 여수 프로젝트와 여수선언 비전을 담았다.

이번 행사는 21일 기후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된 '대중

교통이용의 날'을 시작으로 '차없는 날' 운영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기후보호주간 행사 기념식은 22일 오전 10시 30분 거북선공원에서 시민, 내빈,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행사, 분행사, 협약식,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여수, 지구와 약속하다'란 주제로 여수소망을 지구본과 함께 띄우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갖는다.

홍국체육관 일원에서는 22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전시회, 전기차·전기 자전거 시승, 자전거역사 부스, 환경사전, 기상사전 전시회 등 각종 전시회가 열린다. 이날 밤 8시부터 10분 동안 전국 일제 소등행사가 시내 일원에서 실시된다.

23일 오전 10시에는 '온실가스 감축 우수사례 발표회'를 여수산업단지 공단회의실에서 갖는다.

'기후보호주간 여수 2010' 피날레 행사로는 24일 홍국체육관 일원에서 제40회 지구의 날 기념식, 환경그림 그리기, 문화행사 등이 마련된다.

24일에는 홍국체육관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오전 7시~ 오후 7시), 기후변화와 저탄소 관련 홍보와 각종 체험 행사를 연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 해남 문내면 전원마을 짓는다

## 郡, 33세대 조성 ... 이달부터 진입로 확충

오는 2011년 해남군 문내면 무교리에 도시민을 위한 전원마을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최근 무교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기반시설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해남군은 지난 2008년 지방이전기업 전원마을로 선정된 무교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이달부터 진입로 확충과 상하수도 매립 등 기반시설 조성에 나섰

다.

특히 무교리 전원마을은 전남 유일의 지방이전기업 주도형 전원마을로 화원면에 위치한 대한조선 임직원들의 정주공간 제공을 위해 33세대가 조성될 예정이다.

무교리 전원마을은 2만9천121㎡ 부지에 국·도비와 입주인 부담금 등 50억2천200만원을 투자해 도시민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 순천시 전통주 개발 나선다

## 친환경 누룩·참쌀 원료 ... 갈대뿌리 활용 특산주도

순천시가 지역 명품 특산주와 전통주(酒) 개발에 나선다.

순천시는 순천대 산학협력단과 협력해 순천만 간척지에서 생산된 참쌀과 친환경 우리 밀로 만든 누룩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천만에서 자란 갈대뿌리를 활용한 특산주 1종을 개발할 예정이다.

전통주와 특산주는 알코올 도수를 12~16도로 맞춰 마시기에 편하고 숙

취가 없는 건강 지향형 웰빙 주류로 개발된다.

전통주 제조기술이 표준화되면 제조업체와 협약을 맺어 기술이전을 통해 대량생산 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특산주와 전통주 개발이 완료되면 '순천 대표음식점' 개업시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ija@

# 남도 관광정보 스마트폰에 다있어요

## 道, IT기술 활용 'U-남도여행 길잡이' 구축

두꺼운 여행책자 대신 스마트폰 하나로 남도 관광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U-남도여행 길잡이'(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전남도는 20일 오후 3시 도

청 서재필실에서 'U-남도여행 길잡이'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갖는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반영된 남도의 지리 정보 안내에 따라 전남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5천여 건의 정보를 담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남도여행을 보다 흥미있게 즐길 수

있다.

여행정보에는 도내 주요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특산물 등 관광문화 관련 핵심 콘텐츠를 모두 망라돼 있다.

또 22개 시·군의 모든 관광정보를 총괄 정리해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냄으로써 정보 검색을 위해 도, 시군 등 여러 홈페이지를 몇 번씩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충실하고 편안한 관광안내 역할로 남도여행의 만족도를 높게 된다. /정필수기자 bungy@

**U-남도여행 길잡이**

여행정보는 도내 주요 관광지, 맛집, 숙박시설, 특산물 등 관광문화 관련 핵심 콘텐츠를 모두 망라돼 있다.

또 22개 시·군의 모든 관광정보를 총괄 정리해 하나의 시스템에 담아냄으로써 정보 검색을 위해 도, 시군 등 여러 홈페이지를 몇 번씩 클릭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특히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 제공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충실하고 편안한 관광안내 역할로 남도여행의 만족도를 높게 된다.

/정필수기자 bungy@